



"quarterly 청렴" <2016년 제2호 2/4분기>

2016. 6. 7. 국토교통부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청렴韓 길로(路)

□ 간추린 청렴소식

1 청렴도 자가진단 및 청렴온도 측정(16.5.9)

▶ 청렴도 자가진단을 실시하여 측정결과를 온도계 형식의 온도(수치)와 그래프(색깔)로 표출, 청렴 수준에 대한 자기성찰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청렴도향상 실무단 회의 개최(16.5.10)

▶ 각 부서 주무계장 및 청렴지킴이 등이 참석하여 관행적 부조리 근절을 위한 과제 발굴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3 청렴워크숍 실시(16.5.31)

▶ 청렴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고 나부터 변화하는 마음가짐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실현을 위한 청렴워크숍을 개최 하였습니다.



□ 해외 청렴 사례 소개

■ 가장 행복한 나라 1위 북유럽의 청렴국 덴마크

● 청렴하고 탈권위적인 국회의원들이 덴마크의 상징

- 의전차량이 없어 국회의사당에 별도의 주차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
- 국회의사당 정면 현관에는 이(齒), 귀, 머리, 위(膵)가 아픔을 의미하는 '사통(四痛)' 초형이 있어 국민을 생각하는 건강한 정치를 하라는 메시지를 던져줌

● 언론과 사법기관의 부패 감시 공조체제

- 덴마크의 부패사건은 대개 언론기관에 의해 적발되고 있으며, 언론기관은 '고발기자(investigative journalists)'라는 특수분야 기자를 양성하여 부패 문제를 고발
- 언론에 의해 부패관련 사건이 알려지면, 사법당국은 거의 예외 없이 수사를 통해 진상 확인하고 다시 언론을 통해 결과 공표

● 관련 사례

- 2009년 한국을 방문한 덴마크 대법원장 멜치어는 "2008년 실시한 법원의 여론조사에서 국민 94%가 법원에서 받은 서비스에 만족하며 법원 판결을 신뢰하고 있고, 패소 판결을 받은 사람들도 절대 다수가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았다'라고 답했다"며, 이는 "뇌물수수나 부정부패가 없는 공공행정에 대한 높은 신뢰가 법원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함

□ 행동강령 Q & A

Q&A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Q 업무용 차량을 소속 공직자의 동호회 모임을 지원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인지?

A 원칙적으로 행동강령 위반임. 다만, 공직자의 동호회 활성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소속 기관장이 일시적·제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한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함.

Q&A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Q 친구의 경조사에 현재 근무하는 부처명과 직명을 표시한 화환을 보내어 전시도록 하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A 행동강령 위반이 아님. 경조사는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행사가 아니므로 경조사에 보내는 화환 또는 경조봉투에 기관명이나 직위를 기재하는 것은 가능함.

□ 김영란법 바로 알기(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부정청탁의 금지행위 ◆

1 인가·허가 등 업무처리

- 인가·허가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 인가·허가의 취소, 조세, 과태료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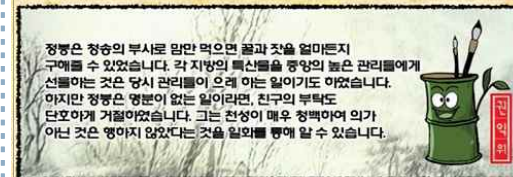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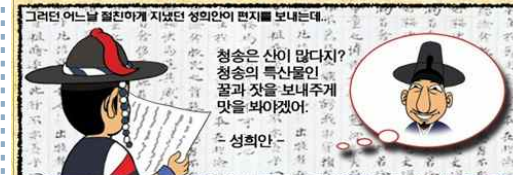
-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청렴만화

짚은 높은 산에 있고 꿀은 민가의 벌통에 있다 -정봉-



□ 청렴인물 탐방

◆ 울지마 톤즈 이태석 신부 (1962.10.17 ~ 2010.1.14)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장래가 보장된 의사의 길을 버리고 사제가 되어 아프리카 수단인 톤즈로 파견을 자처하여 교육과 의료봉사에 헌신 하는 등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림.

2008년 11월 휴가차 한국에 왔다가 대장암 판정을 받고 1년간의 암 투병 끝에 2010년 1월 14일 선종함.